

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대



반야경전의 초월적 경향(7)

부파불교의 유이론적 경향은 대승불교의 흥부와 함께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무신론적 흐름과 유신론적 흐름이다. 무신론적 흐름을 대표하는 것은 반야반야경전들과 <유마경>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상이다. 화파로는 중관파와 가 여기에 속한다. 유신론적 경향을 대표하는 경전은 <법화경>과 <해일경>, <열반장> 등이다. 초기 대승불교를 주도한 것은 반야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반야사상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반야경전 속에서 신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초월적 경향을 나타내면서 신의 속성과 상통하는 개념은 있다. 반야는 완성이란 용어이다. 흔히 이것을 반야반야라미라 부르며, 줄여서 반야라라고도 한다. <대품반야장>을 중심으로 반야반야라미의 성격을 살펴보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깊은 반야반야라미를 들고 수지 독백하며, 바르게 사유해 살바라미 마음을 여지 않을 때 단가까지 배우고 있을 때에도 이 선남자 선여인은 반야반야라미를 외우는 한 전

브라마ण교의 속성 '반야'에 수용돼 경전-주문 동일시...절대화 방지

투에 활용되게 되어도 목숨을 잃거나 잡나아 화살에 타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명품 제30> "반야반야라미를 단가씩 써서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하고, 기억하지도 않지도 않으며, 설 하지도 버려도 사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는 사람이야! 혹은 사람 아닌 것[사람]이 해결되고 해도 그 기쁨을 얻을 수 없다"(상 동)

인용문에서 반야반야라미는 <반야장>을 지칭한다. 살바라는 일체의 지체 즉 반야이다. 따라서 반야반야라미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 반야반야라미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과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초월적 공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반야경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논리적 설득을 얻기 위해 몇 가지 더 인용해 보자면 다라과 같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반야반야라미에 대한 수지, 독송, 서사, 바른 사유, 남을 위해 설명해 주는 것 등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혼자서 반야에 있거나 혹은 두서는 화야를 가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도 마친내 두루위하거나 겹치지 않는다"(상동품 제30). *가지지 무정을 일으켜 파괴하고 싶어도 사람은 있어도 반야반야라미의 위신력에 의해 그 나쁜 마음

이 바로 소멸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착한 마음을 내어서 공덕을 더하게 된다'(열경품 제31). *송사가 벌어져도 반야반야라미를 독송한 까닭으로 아무 일도 없다. 반야반야라미의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열경품 제34). *독야 밤새를 말더라도 혹은 사악한 요술을 사용하거나 불구멍에 빠져더라도, 칼에 죽임을 당하려 하거나 독약을 먹게 되더라도 다치지 않게 된다'(대명품 제32). *눈이 병들지 않고, 귀, 코, 혀, 신체도 병들지 않는다. 몸을 다쳐 불구가 되지 않고, 쇠약해 들지 않으며, 결코 행사를 당하지 않는다"

*이상은 모두 <대품반야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대품반야장>의 주석서인 <대지도판>에는 반야자의 성격을 22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22가지 속성 중에서 반야반야라미의 불가지의한 공덕에 관해 여섯 가지 정도 언급한다. 그렇지만 반야반야라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단순한 지혜의 작용으로 이상과 같은 초월적 속성을 설명하기에는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근본불교 어디에도 지혜가 이상과 같은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파 불교에서는 지혜를 유위공과 무위공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리고 무위공은 다시 택법(擇滅), 비

택법(非擇滅), 허공(虛空)무위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선택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비택적 지혜이며, 자연자라고도 말한다. 그렇지만 자연적 속에는 생사 내지 인간사의 고통을 주재하는 초월적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도사상사 일한 것을 주도하고 있던 브라마ण교의 속성이 그대로 반야반야라미에 수용된 것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야장>에선 경전 자체를 주문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초기불교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모두 브라마ण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반야사상가들은 여기서 반야반야라미를 절대화시키지 않는다. 만일 반야반야라미를 절대화하여 이론론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면 반야사상은 유신론의 범주를 벗날 수 없었을 것이다. 반야반야라미는 우리들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언제나 수행과 함께 체득되는 것이야 강조된다. 어떤 개념, 설사 그것이 반야반야라미라 하더라도 개념화되는 예에는 반대행위에 부정의 논법을 통해 절대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부처 심심불설위유 · 불교학 박사>

세간과 청산 어느 것이 옳으나, 불빛 이르는 곳마다 꽃이 피리라. 신화대지가 나의 집이거늘, 다시 어디서 고향을 찾아가.

덕승산 아래 한 길에 비추는 불 광명예 또 다시 온갖 꽃이 만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불법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차별이 없이 비 춰줍니다. 들판의 꽃가지도 긴 것이나 짧은 것 같지 않 이 평등하게 물이 오르지요. 그러면 꽃가지는 크건 작건 제 나름의 꽃을 피워냅니다.

일체가 평안한 도리를 알려면 길고 짧은 것에 따라 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웃은 꽃지도 길고도, 작지도 크지도 않고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다.범의는 마음만 내면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중생과 수행자는 말 할 것조차 없고, 중생과 부처도 평등한 도리가 분명 있 습니다. 하루빨리 깨달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어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이 공포심 분노심 불평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히 혼돈의 세상이라 할 수 있지요. 환경오염으로 인해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물들 까지 저마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산 천상산 금강산이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많은 스님네들이 전생을 막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미리학과 이라크인' 등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자들의 힘과 편의만 생각하 여 남을 업신여기고, 자연에 파괴하려 하지만 그것은 종국엔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모두가 살 수 없는 것 입니다. 서로 위한다면 조화를 이루는 나이가 될까 찾아주세요. 그러하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유유만 유정할 무정할이 모두 한 뿌리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조각이 광복을 맞아 만공스님께서는 온 인류(人 類)가 함께 살천하에 할 정신으로 '세계-花(세계꽃 화)'를 일러주셨습니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니, 너와 내가 물이 아니요, 해와 달, 공기와 바람, 산천초목이 물이 아니요, 이 나라 지 나라지 물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 이라고 말합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지막은 장래에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마음을 정진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자기 마음을 쓸곧게 지키고 있으면 이 세상이 평화의 꽃을 피우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이든 행복을 찾아 집을 나섰지요. 많은 세월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었지요. 행복을 찾지 못한 나그네는 지쳐 집에 돌아왔습디다. 그런데 이게 웬일 인니까. 담 넘어 매화가지에서 꽃망울 터진 것을 보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나그네처럼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공 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또 다른 곳에서 풍기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서 정리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 인이 귀찮아 할 깨달음을 멀리서 다른 힘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간혹 불자 중에선 불교를 '부처 믿는 종교'라고 말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자신이 만든다는 것 몰라요

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들 뜻을 생각보다는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틀 어다보면 됩니다. 자신의 깨끗한 본래성품이 부처라 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신 의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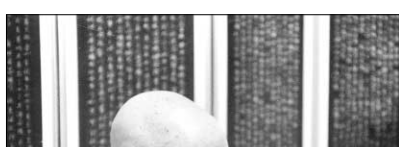


원담스님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자기마음 하나 올곧게 지키면 세계평화 꽃피우는 주역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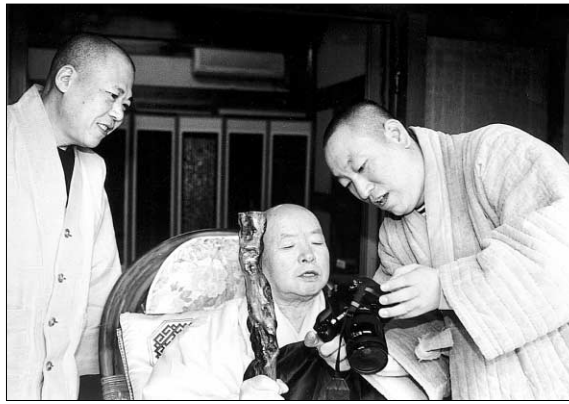
찾는 것이야 평화는 찾는 길이요, 고향을 찾는 길이지, 정법을 찾는 길입니다. 자기들 찾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각자 마음속에 지닌 부처 뿌리를 발견하고자 정진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그 문자에서 가르치는 마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구외법전(外別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곧 '선법'이라는 것이요. 자신을 찾는 데는 법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어디든지 인간과 짐승을 불문하고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아치를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밥을 안에 있으면서 밥을 찾지 못 해 굶어죽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 안에서 부처를 찾는 이는 그나마 다행이고, 물질이 집질 끌려 다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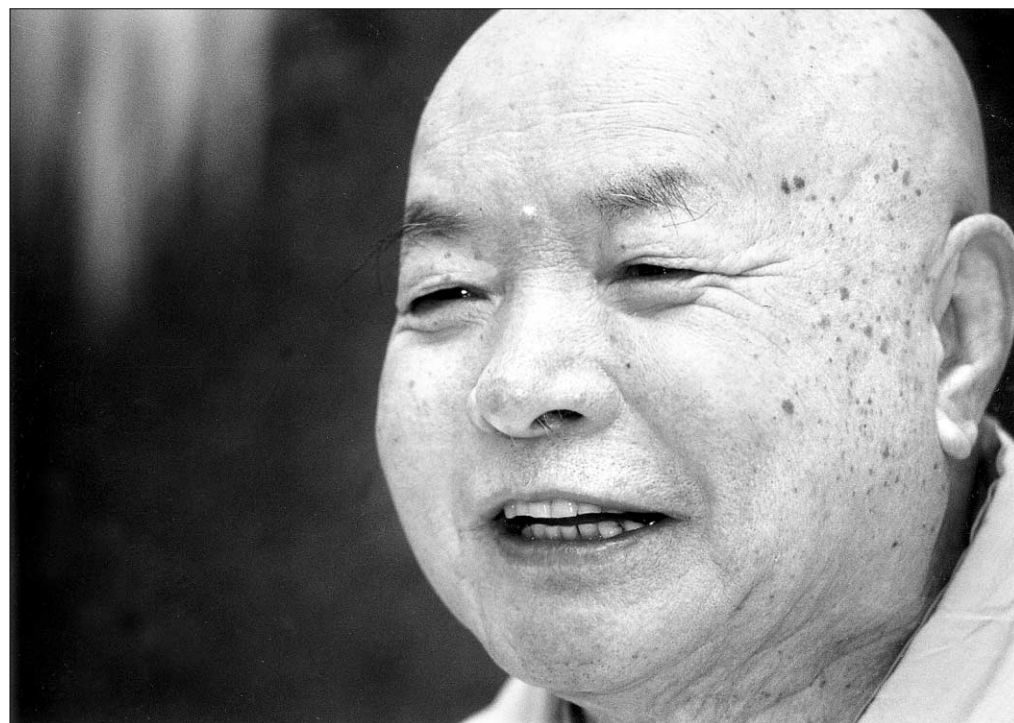
*원담스님이 연화살을 찌른 수덕사 표구과장 원담스님에게 아치를 일러 주며 뒤를 만지며 경배하고 있다.



*순상좌들과 법담을 나누던 원담스님이 기자의 카메라를 살펴보며 즐거워하는 모습.

원담스님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불나 비가 저 죽을 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들어 물에 뜨는 것을 보고, 고래의 칼날에 걸려져 있는 몸을 빨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는 방황과 좌각과 고생에서 허덕입니다. 진실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놓으세요. 옮겨주지 않는 손을 활짝 펴세요. 그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스기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바세계에 나타나신 것도 바로 인간 그대로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부신 것임이 가장 편하고 빠른 지름길이지요. 참선법은 연구나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정진은 일체 생각을 쉬고 일념에 들러,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끊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자가 본 원담 스님

*수덕사의 능선도인(眞禪道인) '늘 자비로운 웃음을 머금는 스님'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은 연화살에 사부대 중이 찾아오면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래서 연화살을 치(禮興-치사상에 일각하여 일평생 직접 선법을 지어 오셨다)고도 알려져 있다. 스님은 16세가 되던 1941년 범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

스님의 은사인 범초스님은 주지 소임을 살면서도 평생 법파에 올라 법편한 적이 없었다. 백장 스님의 '허무 일을 하지 않으면 허무 먹지 않는다'는 선승의 지(禮興-치사상에 일각하여 일평생 직접 선법을 지어 오셨다) 정진했다. 이러한 범초 스님의 능선도인(眞禪道인)가종을 그대로 계승한 원담 스님은 일하면서 참선을 게을리 않는 선승이라(禮興-회)의 가풍을 전수시키기도 했다.

스님은 만공 선사로부터 전법을 받은 후 가행정 진한다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 1993년 덕승총림을 설립했다. 이후 <만공어법>을 발간하는 등 덕 승선승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수행에 힘써오다 지 난 86년 덕승총림 3대 방장에 취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내 마음, 내 부처, 내 본래면목을 찾으십시오. 그것만 찾으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서는 중생심은 저 멀리 사라지고 항상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바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처를 찾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참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수행법 중에서 자신을 찾는 가장 편하고 빠른 지름길이지요. 참선법은 연구나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정진은 일체 생각을 쉬고 일념에 들러,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끊고 철

저히 해야 합니다.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저절로 범행이 우러나는 진실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1926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난 원담스님은 1937년 중이 찾아오면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래서 연화살을 치(禮興-치사상에 일각하여 일평생 직접 선법을 지어 오셨다)고도 알려져 있다. 스님은 16세가 되던 1941년 범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

스님의 은사인 범초스님은 주지 소임을 살면서도 평생 법파에 올라 법편한 적이 없었다. 백장 스님의 '허무 일을 하지 않으면 허무 먹지 않는다'는 선승의 지(禮興-치사상에 일각하여 일평생 직접 선법을 지어 오셨다) 정진했다. 이러한 범초 스님의 능선도인(眞禪道인)가종을 그대로 계승한 원담 스님은 일하면서 참선을 게을리 않는 선승이라(禮興-회)의 가풍을 전수시키기도 했다.

스님은 만공 선사로부터 전법을 받은 후 가행정 진한다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 1993년 덕승총림을 설립했다. 이후 <만공어법>을 발간하는 등 덕 승선승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수행에 힘써오다 지 난 86년 덕승총림 3대 방장에 취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평화·정법 찾는 길이고 부처 되는 길이지요"

*어사님이 이르기까 '오늘은 비록 보충하나 내일은 보존하야' 했다. '고 하였으니 자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도 방일함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과 경계가 서로 부딪쳐서 삼나무에 불이 타는 것 같이 번갈스럽게 세월을 보내 버리면, 화두 또는 공부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인본타할 뿐입니다.

*수행할 때는 나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렸다는 생 각조차 버리세요. 삼을 세워서도 안됩니다. 부처가 되어 나를 완성하면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선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모든 불행과 번뇌 불행하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안심(安心)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난관에 도달하면 잠깐 시간을 내어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고, 무순일이면 해결되는 힘이 나옵니다. 요즘 세계가 위축중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데는 불행과 번뇌 불행하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안심(安心)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한 조각이고 밝은 것엔 밤을 뜯고요. 유심 무심으로는 흔히 알 수 없다. 가을 가운데 항상 있는 이 마음은 곧 확언한 허공이며 털갈리지 않는 기쁨이요. 정리=김원우 기자 www9@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9@buddhapia.com



심산스님의 스님 이야기

원통스님

출가 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비교적 오래 함께 살았던 스님 중에 외국인 스님이 한명 있다. 서울 화계사 승산 큰스님의 상좌인데 원통스님 은 법명을 쓰는 폴란드 스님이다. 눈을 푸르고 코 는 오목하지만 자그마한 몸집이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느낌하고는 거리가 먼 단아한 모습의 스 님이다. 내가 불도사부삼포외교에 사는 10년 동 안 거의 5년을 같이 살았으나 그 시간을 함께 한 스님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 꼭꼭이었고, 나 를테로 많은 노력할 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 다. 종무소에 근무하는 보살님의 딸 친구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한창 글을 배우던 선화가 유익 하게 원통스님을 골짜기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 는 종무소에서 선화가 바느질기를 하고자 제 의 를했다. 원통스님이 볼 때 안 하느라 재민이 안서 매 저만큼 앉게 하지 한 마리가 날고 있는 것이 보 였다. 원통스님이 너무 반가워하며 무슨 새나고 했기에, 선경을 어지도 없이 가차 없이 답했다. 그 리고는 절로 웃었다. 그랬더니 원통스님은 만나 는 사람이야 항상 구경을 갖는다고 가차 한 마리로 호응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것이다.

몸집 작고 단아한 '폴란드 스님' 선무도 지도...영어로 법문도

작이 절도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무도를 가르쳤다. 어린이가 눈에 비친 외국인 스님의 선무도 강의와 실습은 다른 어린이집에 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 지니었다. 아마도 먼 훗날까지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스님의 제인 원통이라는 말은 '미국스님'이라는 말이다. 스님은 폴란드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 지고 살고 있는데,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이 어야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해하지 못할 문화적 차이에 당황했었다고 말 했다.

그리고 함께 살던 어느 해에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 봄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요즘 같은 시 기에 겨우내 버려진 화계구경을 가게 되었다. 줄 는 대로 쌍안경을 준비해서 새벽 예불 후에 들 는다. 내가 불도사부삼포외교에 사는 10년 동 안 거의 5년을 같이 살았으나 그 시간을 함께 한 스님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 꼭꼭이었고, 나 를테로 많은 노력할 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 다. 종무소에 근무하는 보살님의 딸 친구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한창 글을 배우던 선화가 유익 하게 원통스님을 골짜기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 는 종무소에서 선화가 바느질기를 하고자 제 의 를했다. 원통스님이 볼 때 안 하느라 재민이 안서 매 저만큼 앉게 하지 한 마리가 날고 있는 것이 보 였다. 원통스님이 너무 반가워하며 무슨 새나고 했기에, 선경을 어지도 없이 가차 없이 답했다. 그 리고는 절로 웃었다. 그랬더니 원통스님은 만나 는 사람이야 항상 구경을 갖는다고 가차 한 마리로 호응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것이다.

몸집 작고 단아한 '폴란드 스님' 선무도 지도...영어로 법문도

작이 절도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무도를 가르쳤다. 어린이가 눈에 비친 외국인 스님의 선무도 강의와 실습은 다른 어린이집에 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 지니었다. 아마도 먼 훗날까지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스님의 제인 원통이라는 말은 '미국스님'이라는 말이다. 스님은 폴란드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 지고 살고 있는데,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이 어야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고 하면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 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머뭇 머뭇한 적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 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원통스님은 커피 잔 컵이 그려져 있는 모음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언어와 거역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겨우 대 입에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

간(肝)

간 지방간 간 평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금과 비단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이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참) 가지고 전통 재래식(기마슬)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신성한 허물을 없애 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물에서 출어한 참 다슬기(참)를 구운 울금 다슬기 죽은 것만 걸러내어 골라내서 깨끗이 씻고 고춧가루, 대추, 대추 10g을 분쇄하여 기름에 넣고 천황(참)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시간을 더한다. 여기 물, 생강, 대추를 넣고 2시간을 더 끓인다. 농축액은 60도 이하로 보관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리에 넣고 향리 90마리를 달인 물에 끓여 물이 다슬기기 기름을 끓여낸 뒤 향리에 물이 끓어올라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다. 향리가 다들러가까지 90~95도 이하로 끓인다. 향리 달인 1리터당 1리터.

*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의 저녁"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를 통째 (민속농원)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흡수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조차 치유 되지 않는 원인모를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증증, 외사증, 중증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기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형영합니다)

※ 적용, 오형철학(五行學), 인성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갖바위 뒷길 **시연 정사**
053)853-2211, 011-808-8880

승복 범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복을이러는 재대로 범복이 계속 생산 - 연구에 힘하는 저희 법제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긍정적 행동을 만들어왔습니다.

1. 모직훈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늬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3. 누비 (면술 100%)	적삼, 바지: ₩220,000 동방, 바지: ₩240,000 두루마: ₩200,000
4. 누비 (혼방)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마: ₩170,000
5. 범복 (회색, 밤색)	조끼, 바지: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7. 승복 (골덴)	적삼, 바지, 조끼 ₩200,000 동방, 바지 ₩19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 전화문의: 대구 지어점 담당구역 3번 줄 4구역

36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망각

전화: (053)256-0108
공: (053)425-4449
휴대: 016-597-4449
011-809-2398

아름섬유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점포집])

일붕문도회 소집공고

일붕문스님 은제자 및 그 직계제자들의 모인인 "일붕문도회"가 제 5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소집하오니, 공사다량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불기 2547(2003)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일붕선원 (일붕문도회 전법도량)

일붕선원: 서울시 중구로 인영동 93번지
TEL 02) 379-2635, 736-2585
FAX 02) 736-2584

일붕문도회장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다산균

선천성 병체 상추배방 당산진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앞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계속